

3. 삶을 계획하기

가족 중에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용서를 실천할 계획을 세우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5월 8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05장
- 성경읽기 : 창 42:18-25 (구약 66면)
- 말씀나눔 :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4.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악을 갚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과거의 상처로 인한 원망과 상처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세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 42:21]



0. 본문 배경

요셉은 형들에게 집에 두고 온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와 신분을 증명하면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거두겠다고 제안합니다(18-20절). 형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명을 벗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까지 잃을까 많이 근심할 것이 걱정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행한 죄를 깨닫고, 지금의 괴로움이 그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21절). 형들이 털어 놓는 회한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린 뒤 시므온만 인질로 잡고, 곡식과 돈과 함께 형들을 돌려보냅니다(23-25절).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요 16:8),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잠 28:13).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중에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여 긍휼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 말씀 관찰

1)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나요?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흘 만에 형들을 다시 본 요셉이 처음으로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18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막내를 데리고 와서 결백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19-20절). 그러자 형제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21절). 자신들이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 갑니다.

2)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챙겨 주었나요? (25절)

곡식을 주고, 곡식 값도 돌려주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놓아 주는 행위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곡식 값도 돌려주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에 살아남을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 속에 악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합니다.

2. 말씀 적용

1)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선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나누어봅시다.